

# 3개 전문대에 '출판과' 생긴다

## 신구·대전·부산전문대 등...중견인력 양성에 박차

내년 3월에 3개 전문대학에 '출판과'가 동시에 개설된다. 현재 출판과가 있는 곳은 충남 홍성에 있는 혜전전문대학(학장 김형덕) 하나. 출판자율화 바람을 타고 전문교육기관의 '개업'이 세곳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출판 관계자들의 관심은 자못 크다.

### 커리큘럼 작성, 교수진 확보 서둘러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신구전문대학(학장이종익)은 기존 인쇄과(78년 신설)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수진과 실험실습장 마련 등 새로 들어올 80명의 출판과 신입생맞이를 준비중이다. 또 인쇄과에 있던 교과과정 중 출판광고·출판연습 등의 과목을 중심으로 전자출판·저작권론 등 탄탄한 커리큘럼을 새로이 짜고 있다. 신구전문대는 수도권 지역이라는 잇점을 들어 졸업후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중부권에서 중견전문인력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한 대전전문대학(학장 정원채) 역시 출판과(80명)를 신설했다. 원래 학교명은 대전간호전문대학이었으나, 이번에 '출판과'와 '관광과'가 신설됨으로써 대전전문대학으로 교명을 정식 변경했다. 대전전문대는 학과 신설에 따른 유능한 교수진, 현대의 첨단시설 등을 확보하기 위해 치밀한 세부작업을 추진중이다.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부산전문대학(학장이윤근)에도 '인쇄출판과'(80명)가 내년부터 개설된다. 부산지역 일대의 인쇄·출판인력 공급에 커다란 구심점이 될 것을 목표로 현재 교수요원·교과과정·시설 등 모든 준비에

완벽을 기하고 있다.

### "이론과 실무 병행 바람직"

전문대학의 출판과가 세곳에서 동시에 개설됨에 따라 여러가지 요구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혜전전문대 출판과 오경호교수는 교수진 확보문제에 대해 "대학에 출판학과가 없어 신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출판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신문과 출판은 매체의 성격, 제작과정이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출판잡지를 전공한 사람이 강의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출판강의는 현장 경험과 이론이 동시에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이론과 실무의 병행은 곧바로 교과과정과 연결된다. 혜전전문대를 졸업한 후 원문회사에서 편집일을 하고 있는 양정자씨(24)는 "생소한 전문용어가 나열되는 이론강의보다는, 실제 작업과정을 익힐 수 있는 실습과정에 좀더 많은 시간이 배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습의 보강문제는 대학 자체에서도 가장 신경을 쓰는 대목인데, 각 출판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런 점에서 사설기관에서 운영하는 출판·편집 교육은 3~6개월코스에 실무를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어, 전문대 출신이 오히려 무색할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신구전문대 출판과 전영표교수는 "출판사가 늘어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단순한 사업의 하나로 이뤄지는 교육보다는 체계적인 교과 과정에 의한 전문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학교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협



편집과정 실습을 하고 있는 신구전문대학 인쇄과 학생들.

회 등의 장학금 지원과 같은 협조가 아쉽다고 했다.

또 한가지 생각할 점은 성남, 대전, 부산 등에서 배출되는 출판인력이 출판사가 많은 서울로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출판과 출신들이 취업을 위해 서울 친척집에 있거나 하숙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앞의 홍정자씨 말이다. 현지에 있는 기업홍보실이나 지방신문사 등에서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하리라는 견해들이다.

### 학부과정에도 '출판과' 정착돼야

전문대 출판과 신설에 따른 이같은 요구와는 별개로 4년제 정규대학의 출판학과 신설을 요구하는 소리 또한 높다. 이미 지난 봄에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학회 등에서 정규대학의 출판학과 신설을 문교당국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에도 중앙대와 한양대에서

출판학과 신설 인가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89년 출판학과 개설의 꿈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안춘근씨(한국출판학회·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교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출판에 관한 정규학과 신설은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시작단계에서 부딪치는 교수진, 교과과정 등의 어려움은 당연히 겪어야 할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결국 전문대에 출판과가 많이 생기듯이, 곧 정규대학에도 출판학과가 정착되리라는 전망이다.

출판연구소 김희락 사무국장도, 전문대에 출판과가 증설되고 대학원 과정에 출판·잡지 전공이 있는 터에 교육의 중심인 정규대학에 출판학과가 없다는 것은 '기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원 기자

##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사색하는 사랑을 위하여



### 사랑은 자유하는 삶입니다

시인 칼릴 지브란의 사랑의 편지가 들려주는 정제된 영혼의 언어, 여기에 답하는 지적인 한 여인의 나지막한 음성. 정은하 엮음 값 2,000원

## 천재들의 학창시절

### 천재는 어떤 사람들일까?

청소년 선정도서

세계의 역사를 이끌었던 여러 천재들이 있다. 아인슈타인, 처허칠, 퀴리 부인, 슈베르트.....



그들의 학창시절은 어떠했을까? 공부만 잘하는 우등생이었을까? 천재들의 생생한 학창시절로 함께 떠나보자.



게르하르트 프라우제·이인식 역 값 2,700원

## 사랑의 모자이크

### 이 겨울,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시간

아담과 이브에서부터 비롯되는 사랑의 이야기 — 동화속의 사랑, 오페라속의 사랑, 신화속의 사랑, 사랑사전, 사랑의 명문, 트리비아.



따뜻한 사랑의 선물

김하게 엮음 값 3,000원

도서출판 진선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445-5 전화 · 702-2921, 717-2131~4